

## 금융 취약계층 자립 위해 담보 없이 창업자금 대출

글 채승웅 작가 / 사진 전호성 노브스튜디오



2006년 창업자금을 빌릴 곳이 없을 때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받아 이제는 맛집으로 자리 잡은 '이모네 곰창'은 사회연대은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발전기금을 내놓았다. 오른쪽부터 사회연대은행 이종수 설립자와 김성수 이사장, 이모네 곰창 김옥연 대표(2010. 5. 19)



김성수 이사장(왼쪽)은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마이크로크레딧 인프라 구축 캠페인 선포식에서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가운데) 그라민 은행 총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오른쪽은 이종수 설립자(2007. 9. 11)

1990년대 후반, 식당을 운영하던 김옥연(58) 씨는 남편의 주식투자 실패로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 어떻게든 다시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남편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줄지에 가장이 된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산후도우미 일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야 했다.

2006년, 동생의 권유로 고품창집 창업을 알아보았지만 신용불량자인 그녀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은 한 곳도 없었다.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2% 저리로 1,5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빌려 서울 왕십리 인근에 작은 고품창집을 열 수 있었다. 또한 사회연대은행에서 파견된 RM(Relationship Manager) 김종진 씨로부터 위생관리와 고객응대, 조리법, 마케팅 등에 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도움 받았다.

그 결과 김 씨가 운영하는 '이모네 고품창'은 블로거들과 식도락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서서히 맛집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모네 고품창은 더 넓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여전히 성업 중이다. 김옥연 씨는 이따금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다른 예비창업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김옥연 씨가 창업을 준비할 때 사회연대은행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다른 기관을 통해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했다면 매달 높은 이자의 문턱 앞에서 좌절했을지 모른다. 아니 그 전에 창업의 꿈을 일찌감치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로크레딧(Micro Credit)이라는 말이 있다. '작다'는 의미의 '마이크로'와 '신용'을 뜻하는 '크레딧'의 합성어로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일컫는 용어다. 방글라데시의 은행가이자 대학교수였던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 박사가 고안한 제도로, 방글라데시에서는 1976년 설립된 그라민(Grameen) 은행에서 이 제도를 이용해 수백만 명의 극빈자들을 구제하는 데 성공했다.

## 비올 때 우산 내어주는 은행

마이크로크레딧이란 말을 언뜻 들으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말을 바꿔보자.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가,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상식적인가? 대부분의 은행이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주는 곳이라면, 마이크로크레딧 은행은 비가 올 때 우산을 내어주는 은행인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굿은 날씨에 돈을 빌려주는 단체가 있다. 2014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사회연대은행(사)함께 만드는 세상(이사장 김성수·85, 이하 사회연대은행)'이다.

사회연대은행을 소개하려면 설립자인 이종수(61·현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전 상임이사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그는 197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학생운동을 펼친 열혈청년이었다. 하지만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미국계 금융회사에 입사했다. 그리고 20여년 동안 홍콩 및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일하며 다수의 은행을 설립하는 등 잘 나가는 금융인으로 성공가도를 달렸다.

하지만 캄보디아에서 일하던 당시, 내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던 지난날의 결심을 떠올렸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인도네시아 노동부로부터 농촌직업훈련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수석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 받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올랐다. 인도네시아에서 농촌 빈민들을 위해 일하며 알게 된 개념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딧이었다.





사회연대은행 김용덕(왼쪽) 대표와 이종수 설립자. 김용덕 대표는 코리아크레딧뷰로 사장을 역임했고, 이종수 설립자는 현재 한국사회투자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는 마이크로크레딧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1999년 IMF 금융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던 우리나라에 귀국해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다행히 국내에도 마이크로크레딧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김성수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 등이 그들이었다. 그들은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를 찾아가 조언을 얻기도 하며 약 2년 동안 연구에 몰두했다. 다른 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딧이 농촌사회에 적합했다면,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고 도시사회인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2003년 2월, 각자의 사비를 모아 5천만 원을 마련해 사회연대은행을 발족하기에 이른다.

## 1,861개 업체에 357억 지원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됐을 당시 주변의 시선은 차가웠다. ‘보증도, 담보도 없는데 원금 상환이 되겠느냐?’, ‘방글라데시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느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뿐이었다. 물론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다.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원금 상환이 안 돼 직원들 월급이 3~4개월씩 밀리기도 했다. 하지만 확고한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을 뿌리내릴 수 있었다.

사회연대은행이 진행해온 사업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앞서 설명한 마이크로크레딧 창업지원이다.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소액의 창업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 지자체, 민간기업 등 21개 단체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1,861개 업체에 357억 원을 지원했다.

한국사회에 적합한 마이크로크레딧을 연구하던 사회연대은행이 내놓은 대안은 RM(Relationship Manager) 제도였다. RM은 사회연대은행에서 파견한 전문가들로 마케팅 전략, 창업세무지식, 법률지식 등 사업주가 창업 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돈을 빌려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RM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RM 제도의 도입은 대성공이었다.

그동안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한 가게의 5년 이상 생존율은 평균 70%로 일반적인 자영업 생존율인 20%를 훨씬 웃돌고 있다. 업종별로 차이는 있지만 월평균 매출액 1,389만 원, 월평균 순이익 332만 원, 가구 총소득 517만 원, 월평균 저축액 86만 원으로 조사되고 있다.

둘째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다.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2007년부터 노동부 등의 기금을 받아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마케팅, 재무, 인사 등과 관련된 부분을 조언, 또는 근로자 교육,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년까지 100개소에 76억 원을 지원했다.

셋째는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이다. 고금리 대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한 학생당 최대 1,000만 원을 연 2% 이자로 대출하고 있다. 이 또한 4,600명에게 178억 원을 지원했다.

그밖에도 마이크로크레딧의 저변 확대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07년부터 한국마이크로크레딧개발센터(현 사회적금융개발센터)를 발족하고, 취약계층 창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과 마이크로크레딧 기관 컨설팅, 취약계층 창업 지원사업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연대은행의 직원들. 대안 금융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은 창업자금 대출과 사회적기업 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 사회적 금융의 새로운 모델 연구

사회연대은행이 설립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활발한 지원활동으로 2005년에 한국사회공헌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단체는 현재 중요한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2008년 정부의 마이크로 크레딧 모델인 미소금융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사회연대은행으로 들어오던 기부금이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기부금이 줄어들면서 지원사업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축소됐다.

이종수 설립자는 “1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사회연대은행이 많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구를 빌려주는 역할을 했죠. 마이크로크레딧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회연대은행이 많이 기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기업이나 기관의 ‘기부’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부, 위탁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또 현재 사회연대은행의 발전 속도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실을 다지고 사회적 금융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면 더 좋은 방법도 떠오

를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사회연대은행의 설립 당시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이라는 것을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즉 가난 퇴치였다.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사회연대은행이 맡아서 하자는 것이었다.

김용덕(62) 상임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모두 잘 살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슈를 만들고, 관심을 끌고, 사회적인 움직임을 만들어간다면 모두가 조금씩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사회 저변에는 여전히 나눔, 봉사 같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고 있으니까요. 저희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산이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며 각오를 다졌다.

아산상 사회봉사상의 상금은 1억 원이다. 김용덕 대표는 “상금을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기금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들이 앞으로 고안할 또 다른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 모델이 어떤 모습일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